

# 학습 자료

— 대학생들을 위한 저작권 노트 —



## 9차시. 노래를 부르면 저작권 침해?

## 1. 공연이란 무엇인가

## 1) 공연과 저작권

저작권법에서는 연극 상연,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 음악 연주, 노래를 부르는 가창, 구연과 낭독 등을 모두 공연이라고 말합니다. 사진이나 회화 같은 정지화면으로 이루어진 저작물이나 도표·문자로 표시된 저작물도 상영에 의하여 공중에게 현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의나 강연회 등에서 OHP를 이용하여 저작물을 현시하는 것도 ‘공연’에 해당하지요. 상연이나 연주 등의 복제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도 공연에 포함됩니다. 판매용 음반이나 비디오테이프를 구입하여 음악감상실, 커피점, 호프집, 백화점, 체육시설, 유흥장, 음식점 등에서 기계적 또는 전자적으로 재생하는 방법으로 고객들에게 들려주거나 보여주는 것도 공연에 해당합니다.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이용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극장에서 영화를 상영하려면 영화의 권리자에게, 콘서트장에서 노래를 부르려면 작곡가, 작사가에게 사전 동의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조**

##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 2) 공중에게 공개

공연이 되려면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이어야 하므로, 개인적인 이용은 공연이 아닙니다. 즉 비영리공연 등의 공정이용 조항을 찾아볼 필요 없이,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 이어폰으로 듣거나 혼자 있는 방에서 음악을 듣는 것은, 공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저작권법의 목적

저작권법에서는 공연에 있어 두 가지 저작권 제한 사유를 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비영리 공연이고, 두 번째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판매용 음반, 영상저작물 재생입니다.

### 1) 비영리 목적 공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입장료와 같은 반대급부도 받지 않는다면, 저작물을 마음껏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비영리 목적, 반대급부가 없음이 요건입니다.

#### 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① 비영리 목적, 반대급부가 없을 것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또한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들이 하는 공연은 대부분 비영리입니다. 하지만 반대급부를 받는 경우는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이용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처리가 필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②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것

학교 축제 때, 학생회가 수백만 원을 주고 모셔온 초대 가수의 공연은 어떨까요. 입장료도 받지 않고, 공연은 당연히 비영리입니다. 하지만, 노래를 부르는 가수는 많은 돈을 받아가지요. 이런 경우까지 저작권을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작곡가, 작사가에게 대가를 지불해야겠지요. 저작권법에서는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 &lt;비영리 공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gt;

- 군경 음악대의 야외행진 연주
- 학교의 학예회
- 동호인의 야외음악회
- 영화제에서의 시사회
- 입장료 등을 받지 않고 자선목적 등으로 저작물을 공연하는 것

## 2) 반대급부를 받지 않은 ‘판매용’ 음반/영상저작물 재생

이 경우에는 영리목적이어도 됩니다. 청중이나 관중으로 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 ① 반대급부를 받지 않아야 한다.

공항휴게실이나 대중음식점, 다방 등의 업소, 고속버스, 슈퍼마켓 등의 매장에서 노래 테이프나 비디오테이프를 공연하는 것은 영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는 것은 아니므로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 저작권법 제29조

②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리행위와 연결되는 공연이라도 당해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직접 받지 않는다면 반대급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입장료 등 직접적인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다면 광고를 삽입함으로써 광고주로부터 간접적인 대가나 수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상관이 없지요. 이처럼 영리적인 이용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유이용의 범위가 넓어 저작재산권자의 경제적 이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이에 법에서는 적용 대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의 생활과는 직접 관계가 없지만, 나이트클럽, 경마장, 경륜장, 에어로빅장 등에서는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더라도 저작권자에게 이용허락을 받아야만 판매용 음반/영상저작물을 재생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이 제한되는 사례

-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각목(라목의 유흥음식점은 제외)의 규정에 의한 영업 (예컨대, 커피숍, 레스토랑, 패스트푸드점, 편의점, 호프집, 제과점 등)으로서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내용의 일부로 하지 않거나, 이를 광고하고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특별한 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은 영업장소.
- (2)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규모 점포를 제외한 유통업 점포.
-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는 규모를 초과하지 않는 체육시설, 당구장, 수영장, 골프연습장 등. 다만, 음악을 영업의 주요내용으로 하는 에어로빅장, 무도장은 여기서 제외된다.
- (4) 공항,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대합실, 고속도로 휴게소, 철도 및 지하철 역사.
- (5)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내부.

## 저작권법 시행규칙 제11조(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7.22, 2009.8.6>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 「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형태의 공연
    -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 자.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 ② ‘판매용’에 해당해야 한다.

최근 법원에서는 판매용 음반의 의미를 시판을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으로 판시한 바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0.9.9. 선고 2009나53224 판결**

스타벅스 매장에서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을 틀어 준 것은 공연권 침해이다! 반대급부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외국계 커피 전문점의 한국 지사가 본사와의 계약에 따라 본사에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공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음악저작물이 포함된 CD를 구입하여 우리나라 각지에 있는 커피숍 매장에서 그 음악저작물 등을 배경음악으로 공연해 온 사안에서, 위 CD는 주문에 응하여 제작된 불대체물로서 시중에 판매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암호화되어 있어 위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업체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며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는 등 저작재산권의 제한 사유에 관하여 규정한 저작권법 제29조 제2항의 ‘판매용 음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참고로 스타벅스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것은 영리적 이용이므로 저작권법 제29조 제1항의 비영리공연도 해당되지 않는다.